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말세의 징조들 2

(마 24:15-28)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이고,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도둑 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며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2-13)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15절).

이 말씀은 단 11:31절과 12:1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상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자타가 신으로 공인하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꽂았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 더럽고 추한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훼손한 일입니다. 이때 디도 장군의 군대에 의해 죽은 사람은 110만 명이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10만 명에 가까운 자들도 전부 다 포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이때처럼 피비린내로 가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19-20절).

피난을 가는데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 먹이는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그때가 추운 겨울이거나 안식일이 끼어 있다면 그들이 심적으로 받을 고통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시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그 곳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목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었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21-2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26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문 앞에서 계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에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Signs in the End of the World II

(Matt. 24:15-28)

The historical view of the Bible is a linear view of history. History has its beginning and end. The beginning is the time when God created the world, and the end is the time when Jesus will come again and judge the world.

Peter the Apostle said and proved that the time should come just like a thief, "That day will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heaven by fire, and the elements will melt in the heat.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ward to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home of righteousness" (Pet 3:12-13)

"So when you saw standing in the holy plac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 (v.15).

These words,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in the contents of Matt 11:31 and 3:12-13 means the people raise idol in the place where

God is. The text showed the incidents of which in 70 AD, General Titus in Rome occupied the Temple and fixed the Roman Emperor's flag that was recognized by everyone as god on the top of the Temple. The fact that dirty and filthy men took the most holy place where only God must be served clearly refers to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desecrated the holy place. At that time, one million one hundred people were killed by the Roman army of General Titus, and then almost one hundred thousand survivors were dragged as prisoner of war. Although Jerusalem, historically, was invaded many times, it was never filled with an extremely bloody time like this.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Pray that your flight will not take place in winter and on the Sabbath." (v. 19-20).

How hard it i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who go into refuge? If they go into refuge in winter or on the Sabbath, Jesus worries and feels sorry about the great pain they feel and asks them not to take part in pr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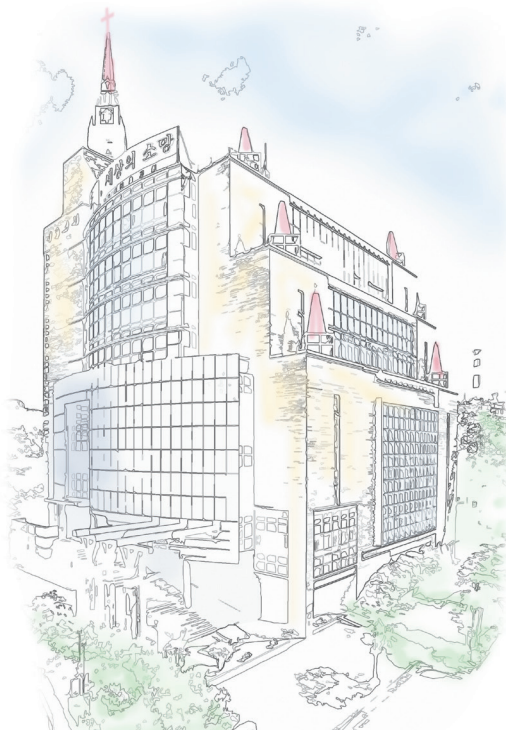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This word was Jesus prophesy in order to save the Israelites. At the time when Roman military surrounded Jerusalem,

Jewish enthusiastic members shouted that they could be saved if they would go there, because Jerusalem is God's Castle and the Temple is the place where God is. Therefore, many people gathered into Jerusalem. But in spite of their assertion, Jerusalem was completely captured by the Roman military. At the end, those who gathered into Jerusalem were extermina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there was never such a great distress. Because God took pity on Israelites, if the days of distress had not been cut short, no one would survive (v. 21-22).

My beloved Christians,

"There, he is out in the desert, do not go out; or, Here he is, in the inner room, do not believe it" (v. 26).

At the last when Jesus comes near and stands in front of a door, by obeying God's word with the spiritual awakening and discernment and by living our lives thoroughly,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joyfully take part in God, the Father's eterni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5 흥해작전」 개전 임박

오늘 찬양예배시 발대식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2015년 흥해작전 발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이며, 기간은 6월 6일(토)부터 6월 25일(목)까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원거리 교구의 성도들은 각 다락방별로 모닝콜과 카풀을 이용하여 서로 참석을 독려하기 바란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 안내석에

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흥해작전 백일장 행사는 유아부부터 초등부는 그림 그리기를, 중등부부터 장년부는 간증문을 모집한다.(4행시 생략) 흥해작전을 마치고 곧바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매일 아침 8층 만나홀에 간단한 아침식사가 준비된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 2015 흥해작전 조직

- 지 도 : 서명철 목사 · 본 부 장 : 이관규 장로 · 차 장 : 최규초 집사
- 기획 참모부 : 백승갑 집사 / 하정자 장윤기 윤동수 김장섭 김광태 김도훈 윤명구 김광욱 최승환 이윤덕 임병권 강성은 강나훈 지성철 류기찬
- 예배 참모부 : 김상태 집사 / 황병석 오세복 김희욱 송용훈 김희석 황현숙 안현식 김규석 정기자 예완식 김선석 나미경 김광룡 박정희 이종창 최세정 이남성 임낙식 강석조 유근중
- 동원 참모부 : 최원석 집사 / 이우진 이준호 오승민 정창빈 김승록 박정인 이태원 김광욱 송인수 서명조 김광룡 신봉하 주동재 차영도 정완진 최규초 송윤문 김진희 박정희 정치은 정은순 이성우 김순영 권성열 박민숙 안지영 전인숙 옥종호 최성희 백승갑 배경욱 손태현 서영희 조상계 유묘종 홍창훈 김은순 박종권 김양숙 이민호 전숙향 최원석 장영순 김홍기 박종숙 이덕성 남현주 이길재 이선희
- 홍보 참모부 : 김규태 집사 / 김민철 허 숙 서춘식 손동희 신동기 오영숙 유은경. 이준태 최영철 정성균 윤희섭
- 봉사 참모부 : 김신영 권사 / 김신영 정미연 조 희 조성경 황인주 양종숙 김경애 김윤희 윤용미 유안순 박현영 김경진 윤 강창숙 이해순 전원순 손재겸 이재순
- 차량 참모부 : 차도훈 집사 / 홍일성 차도훈 이종창 이선표 홍창홍 신종명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에 전원 참여 바란다.

## 교구별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 / 1, 16교구를 시작으로

오늘 찬양예배 시 교구위원회(위원장 : 하인선 장로) 주관으로 교구별 특별찬양이 시작된다. 교구목사가 섬기는 교구별로 연합하여 몇몇 교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형식으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드리게 된다.

특별찬양순서는 다음과 같다.

- 5월 31일: 1, 16교구(유문건 목사)
- 6월 7일: 2, 9, 11, 15교구(황광 목사)
- 6월 14일: 3, 8, 14교구(조원영 목사)
- 6월 21일: 4, 5, 6, 7, 10교구(박영준 목사)
- 6월 28일: 12, 13교구(장석남 목사)



##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선교회 · 전도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 직분자양성부 교육 수료자

- 1교구: 이화영 흥영배 · 4교구: 흥정화1 · 5교구: 박은경 · 7교구: 서병권 조은정 · 10교구: 김민성 전혜진 송현수 · 11교구: 박효진 · 13교구: 고은주 김성혜 남궁규 오민조 원유현 이소희 이종관 이창우 전성희 최미애 최은희 한소영 · 14교구: 박창현 이철현 조인선 최경호 황미란 · 15교구: 박권선 양현주 · 16교구: 김선정 박인희 이선희 총 32명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1)

(문 171)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 잘 못 되었거나 아니면 성경(예수님)이 잘못 되었을 것이라 해야 할까요?

요14:28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의 신성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람으로서 성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둘째 아담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야만 그는 메시아로서(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봉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지 않고서는 아담의 후손 된 인간을 대표 할 수가 없고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분명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치가 낮다고 하신 것은 자연스런 표현입니다.

이사야 52:13-53:12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의 종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 주가 되실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종은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신-인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려 할 때 아버지가 나보다 그 위치와 위엄이 크시다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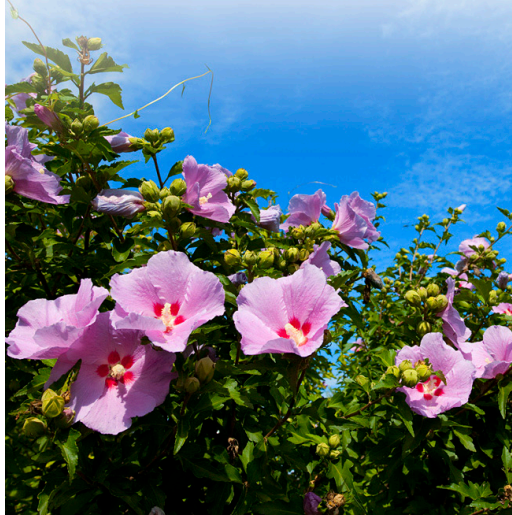
그러나 성육신 하신 아들이로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1:1,8, 8:58, 10:30, 14:9, 17:5, 롬9:5, 골 2:2, 딤후2:13, 히1:8, 요1서5:20).

(다음 주 계속)

6월 호국의 달 특별기고

# 의분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이갑진은퇴장로  
(12교구)

열왕기하 18-19장, 이사야 36-37장에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략과 이에 대항하는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산헤립은 군사적 침략과 함께 그의 외교책사 랍사게의 연설을 통하여 유다 민족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민심을 이반하게 하여, 히스기야 왕의 지도력을 무력화 하려는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드디어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을 유도하는 산헤립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산헤립의 편지를 펴 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산헤립의 응징을 구하는 의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어,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치시고, 산헤립은 그의 두 아들의 칼에 죽게 하였습니다.

금년은 8.15 해방 이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자,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300만의 사상자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낸 3년 간의 6.25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아래 지금도 비무장 지대를 따라 남북한 100만의 군대와 8000여 문의 야포가 대치하고 있는 전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전선에서 한 시간 거리의 서울이 적의 포 사정거리 안에 있음을 잊고, 중북찬양의 데모를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안보 불감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측근들의 처형과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핵의 위협과 대남 군사도발의 위험한 장난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말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나,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도적 같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흥해작전 기간 동안 하나님과 자유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김정은 정권의 패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하나님의 귀와 눈이 그들의 악을 향하게 하시고, 마땅한 응징을 하게 하심으로, 세계의 열방이 주만이 여호와 인줄을 알게 하는 의분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제 1회 예배위원의 날

# 교회의 부흥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황병석 집사  
(안내 1부장)

안내 및 헌금위원 전체 모임인 예배위원의 날 행사가 베델하우스에서 5월25일(월) 열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잔디는 푸르고 우리의 마음은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찬 하루였습니다. 부목사님, 장로님, 예배위원 모두 합쳐 100여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건회에 이어 천세종 목사님의 '사도 바울과 섬김'에 대한 특강, 3부 안내 문금희 집사님의 '봉사하며 받은 은혜' 간증은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경건회 말씀으로 조원영 목사님의 '베레스 옷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옷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어떤 강사보다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안겨 준 천세종 목사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얘기할 때 Hybrid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의 언어적, 문화적 융통성 및 창조성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바울의 Hybrid 특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위원도 융통성과 창조성을 갖춘 '연기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금희 집사님은 2008년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기도와 봉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산다는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문금희 집사님의 3가지 소

원, 이사하지 않고 서울교회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 다닐 수 있도록, 두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모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종창 집사님이 이끈 게임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 좀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위원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서울교회의 부흥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예배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교회 파이팅, 예배위원회 파이팅!!!  
모두 사랑합니다^^



천국시민양성 -어머니 힐링스쿨을 마치며



최중희 권사 (4교구)

힐링스쿨을 통해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에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처음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둡던 표정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밝은 표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에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무슨 치유와 회복?' 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아! 그래, 내 얘기구나! 나처럼 저 분들도 아파하고 있었구나!' 상대방의 얘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는 뭔가 알 수 없는 두드림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위로 받고 돌아간다는 글을 보면서 나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임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적극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섬기는 리더들! 인천에서 구리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결코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귀한 힐링스쿨!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향기로운 수다 시간에는 서로를 통해 나만이 겪는 아픔이 아님을 알고 위로받게 하는 힐링! 특별히 바쁜 가운데 기꺼이 오셔서 강의해 주신 오정수 장로님과 이영희 권사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베델하우스로 힐링팀을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힐링 3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은혜로운 강의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양세라 목사님, 시원하게 찬양을 인도

해 주신 유기순 권사님, 화음으로 찬양을 더 돋보이게 해주신 석준희 권사님, 반주로 수고해주신 신아령 집사님, 화요일 새벽마다 테이블 셋팅을 3기 동안 같이 해주신 송행희 권사님, 이영임 권사님과 백난희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윤계진 집사님, 한효숙 집사님, 김숙영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최금숙 권사님 등 리더들 모두 고맙습니다.

4기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하셔서 세상에서 위로 받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  
하게 하심도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교구별 특별찬양

##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조원영 목사 (3, 8, 14교구 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매순간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분별한 다원주의 문화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7에서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교백이 교구별 특별 찬양 시간을 통해서 5월 마지막 주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서울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저희 3교구, 8교구, 14교구의 믿음의 가족들이 박래경 집사님의 지휘와 흥해란 집사님의 반주로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와 "주 안에 하나 되어"(Don Besig곡) 두 곡의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24, 5/31, 6/7 주일 오후 3시 10분 502호에서 그리고 6/14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문석 장로님(8교구), 이계홍 장로님(14교구), 송인권 장로님(3교구) 교구장님들과 각 교구 부교구장님들과 교구 간사님들께서 교구 식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교구별 특별 찬양을 통해서 서울교회 안에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동정

- 이준윤 원로목사는 6월2일(화) WRF 6대주 대표의 Fuze Conference를 갖는다. 6월6일(토) 사랑의쌀운동과 국제을란바티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뽕비 전도회(5.31) 빌립 전도회(6.7)
- 금주의 식사 제공 : 노노한 장로 정정화 권사 가정 (고 이민화 권사 1주기 주모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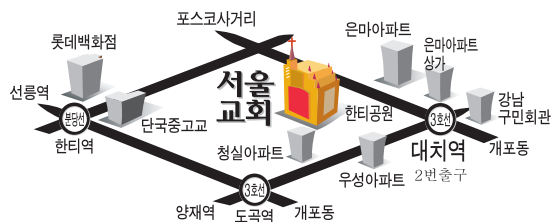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일찬양예배 시에 드리는 교구별 특별찬양으로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3.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모든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애국애족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양시흥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